

## 자녀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김 지 경\*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 모델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만2세 이하의 시설이용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만5세 이하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시설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이 취업 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은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유치원을 이용하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고학력일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용어 :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지출비용

### I. 서 론

미래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참여정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의 육아지원정책은 2004년 6월 12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계기로 보육과 유아교육 그리고 방과 후 교육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로써 육아지원정책은 보육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설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육아지원은 교육 및 보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나 시설의 이용료지원 또는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나 시설기능보강 등의 간접지원의 형태이다(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나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 2003;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 2002). 특히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 중 60~80%가 국공립시설의 인건비와 시설기능보강에 사용되는 등(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정부 지원예산의 대부분은 시설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밝혀진 육아지원 대상 아동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김지경, 2004a). 서문희 외(2002)에 의하면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시설이나 개인에 의한 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71.6%이고, 이 중 64.0%만이 시설을 이용하며, 시설 중 보육시설 23.1%, 유치원 18.2%, 학원 15.0%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학원은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시설은 아니지만 육아지원 대상 아동들의 적지 않은 비율이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대체재로(김지경, 2004b; 변용찬, 2002) 이해된다.

또한 연령별 시설이용률에 있어 2세 이하의 경우는 14.1%이고 3-5세의 이용률은 60.3%(보육 31.2%+유아교육 29.1%)이며 만6-8세 아동의 75% 정도가 방과 후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육아지원 대상 아동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은 연령에 따라 이용률의 차이가 상당하며 그 내용과 성격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정부예산의 대부분이 국공립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난 10여 년 간 민간보육시설이 중심이 된 보육시장의 성장과 확대에 인하여 국공립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이 각각 5.5%와 51.6%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부족(김지경, 2004b;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하여 가계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기 위

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실효성은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08년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고, 보육료에 대한 가계부담을 평균 50% 수준까지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다(개정영유아보육법 제34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시설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육아지원정책 대상 아동의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가계의 육아비용 및 양육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아동들의 시설이용과 그에 따른 지출비용에 대한 파악이 이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어떠한 가구의 자녀가 시설을 이용하고, 주로 몇 세 연령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자녀양육 부담이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모들이 시설을 이용하는지 등 이용에 관련된 정보와 자녀의 시설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등 이용여부와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와 어머니특성 그리고 자녀특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구의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지원 결정의 기준이 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되는 국공립시설의 이용에 있어 이들 기준이 우선 고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이용가능성 및 이용여부 그리고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고 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육재정지원이 확대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육아지원 대상인 초등학교3학년이하 아동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구특성과, 어머니특성별로 비교하고, 자녀연령별로 나누어 시설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델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설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비용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정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어린 자녀의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김지경, 2004a; 나정 외, 2003; 통계청, 2002;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 김승권·조애저, 2000; 서문희·임상현·임유경, 2000; Piecy, Collins & Kreader, 1999; OECD, 1999; NICHD, 1997; Casper, 1995; Akinson, 1994; Hofferth & Kisker, 1991; Butler, Brigham & Schultheiss, 1991)에서 밝혀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의 영향 요인은 크게 가구,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우선 가구의 특징으로는 가구의 형태와 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이 대표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가구의 형태에 있어서는 가족 내의 조모 등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서문희, 2001). 이는 보육기관의 이용이 자녀보육을 맡아 줄 수 있는 가족 내의 조력자가 없을 경우 차선택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내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핵가족인 경우보다는 비핵가족인 경우가 더 높을 것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동부에 비해 읍·면 거주자인 경우가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2001).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육아지원대상 연령 자녀수 대비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수의 비율로 산출한 가구단위 이용률에는 가구의 소득이 부(-)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시설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김지경, 2004b)가 있으나, 개별 자녀단위에서 시설의 이용여부를 분석한 결과(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 Piecy et.al, 1999)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보육시설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이 이

용률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350만원이상 가구에서는 유치원의 이용률이 보육시설의 이용률보다 높으며 학원의 이용은 소득수준과 비례(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하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도 있다. 이는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영어, 음악, 체육 등과 같은 특별활동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해 볼 때,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지출하는 실제 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은 연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이용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어머니의 특징은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선호하고(Piecy, et.al., 1999), 비공식보육 이용자 중에서는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sper, 1995).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육시설이용에 있어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에 자녀의 보육시설이용률이 높고, 유치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서문희, 2001). 그러나 유치원 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중졸이하인 경우 자녀가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나정 외, 2000). 이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시설보육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고 신뢰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시설보육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치원 이용에 대해서는 선호가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자녀의 보육시설이용시간이 길고(서문희, 2001; 나정 외, 2000; 서문희 외 2000), 어머니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자녀가 국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39.7%가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0). 또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보육시설이나 학원이용에 정(+의 영

향을 미쳐 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이용가능성은 높으나, 유치원의 이용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지경, 2004a)도 있다. 이는 가정 내 조력자가 없으면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취업모의 자녀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이 가장 높고,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셋째, 자녀특징으로는 자녀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자녀나이가 많을수록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김지경, 2004a), 자녀가 3세 미만이면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가까운 이웃에 의한 가정 내 보육을 선호하고, 3세 이상이면 시설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문희, 2001). 이는 어린 자녀일수록 가족 내 보육에 대한 높은 선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보육시설에서도 교사 1인당 돌보아 줄 수 있는 영유아의 수가 어린 영아보다는 유아가 더 많아 영아를 시설에서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취학연령에 가까운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생활의 선행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치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분석의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이하 KLIPS) 5차년도(2002년)자료이다. KLIPS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에 재수생 이하 자녀의 유무를 묻고, 재수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모든 개별자녀 마다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이용하는 기관의 수 및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조사되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은 ①학원, ②개인 및 그룹과의, ③학습지, ④방과 후 교내보충, ⑤방과 후

교실, ⑥국공립어린이집, ⑦민간어린이집, ⑧놀이방, ⑨직장보육시설, ⑩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일반유치원, ⑫ 기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의 해당연령의 모든 자녀들이 ①~⑫의 교육 및 보육을 이용하는지의 여부와 자녀마다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또는 보육내용이 무엇이고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는가에 대해 최대 다섯 종류까지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자녀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자녀당 월평균 지출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 시설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본 분석에서는 KLIPS 5차년도(2002년)에 조사된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 1,72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취학 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초등학교 자녀의 시설이용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지원의 대상은 8세 이하 초등학교 3학년자녀까지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초등학교3학년 이하 자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포함하는 자녀의 연령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분석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개인 및 그룹과외와 학습지, 그리고 방과 후 교내보충을 제외한 ①학원, ⑤방과 후 교실, ⑥국공립어린이집, ⑦민간어린이집, ⑧놀이방, ⑨직장보육시설, ⑩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정규유치원, ⑫기타의 이용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으로 정의하였고, 각 자녀들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에 지출되는 월평균 지출금액의 총 합을 '1인당 지출비용'으로 산출하였다. 한 자녀가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1인당 지출비용은 각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 2.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이 가구특징 및

어머니 특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와 자녀연령별 시설의 이용여부 및 이용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이용여부 및 1인당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Heckman의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 : 이하 SBCR)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BCR(Heckit) 모델은 2단계 OLS(Ordinary Least Squares) 기법으로 육아지원대상 아동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시설이용에 따른 1인당 지출비용의 결정과정을 별도의 함수로 추정한다. 즉 시설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1단계의 Probit 모델 분석에서 얻어진 하나의 추정치 mills ratio를 두 번째 단계인 회귀분석에서 부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선택편의의 문제를 수정한 회귀분석으로써 1인당 지출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SBCR(Heckit) 모델은 시설이용여부의 결정과정과 보육비 지출량 결정과정을 각각의 특성에 따른 다른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과 단순한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표본 선택에 따른 편의를 수정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모델의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의 종속변수가 다른데, 1단계 Probit 모델의 종속변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하였고, 2단계 OLS분석의 종속변수는 자녀 1인 지출금액이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 Probit모델에 자녀의 연령, 초등학교3학년 이하 자녀수, 어머니학력, 어머니취업여부, 거주지역, 가족형태가 가변수로, 어머니연령과 가구원수 그리고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자연로그 값이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시설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OLS모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가 어린이집이용의 경우를 준거로 하여 학원, 유치원, 그 외 시설로 나뉘어 가변수 형태로 분석되었다.

<표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 SBCR(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모델

구분	변수	1단계 프로빗분석	2단계 회귀분석	
독립 변수	가변수	자녀연령	만2세 이하:1 만3-5세:2 (만6세 이상:0)	1단계와 동일
		초등학교 3학 년 이하 자녀수	(1명:0) 2명 이상	1단계와 동일
		어머니학력	(고졸이하=0) 전문대졸이상=1	1단계와 동일
		어머니취업여 부	취업:1 (미취업=0)	1단계와 동일
		거주지역	서울:1 (그 외 지역:0)	1단계와 동일
		가족형태	비핵가족:1 (핵가족:0)	1단계와 동일
		주된 이용시설 종류	-	학원:1 (어린이집:0) 유치원:2 그 외 기관:3
	연속변수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1단계와 동일
		가구원수	총 가구원 수	1단계와 동일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총소 득의 자연로그값	1단계와 동일
종속 변수	가변수	교육 및 보육 시설 이용여부	이용함:1 (이용안함:0)	
	연속변수	월평균 자녀1 인당 지출비용	- 자녀1인당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월평균 총 지출비용	

### IV. 분석결과

#### 1. 가구 및 어머니 특성에 따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의 가구특성은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 <표2>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3학년 이하 1,721명 중 62.6%가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37.4%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중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수와 가구원수 그리고 거주지역의 분포가 이들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수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비이용자 집단이 이용자집단에 비해 초등학교3학년 이하 자녀가 1명인 비율이 6.5%p 높고,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2명인 비율이 4.8%p, 그리고 3명 이상인 비율이 1.7%p 높다. 가구원수에 있어서는 이용자 집단의 61%가 4명의 가구원이고,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20.4%p 높으나, 가구원이 3명인 비율은 비이용자 집단이 이용자 집단에 비해 17.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가 1명인 3인 가족의 경우 자녀가 어린 영아일 가능성이 높아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이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2> 가구특성에 따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 명, %)

특 성	범 주	전 체	이용안함	이용함	χ <sup>2</sup> 검정 통계량
전 체		1,721(100.0)	643(37.4)	1,078(62.6)	
		1,721(100.0)	643(100.0)	1,078(100.0)	
초등3이하 자녀수	1명	928(53.9)	373(58.0)	555(51.5)	8.23*
	2명	721(41.9)	250(38.9)	471(43.7)	
	3명 이상	72(4.2)	20(3.1)	52(4.8)	
	평균(명)	1.5	1.5	1.5	
가구원수	3명 이하	299(17.4)	181(28.2)	118(10.9)	26.84***
	4명	918(53.3)	261(40.6)	657(61.0)	
	5명	299(17.4)	111(17.3)	188(17.4)	
	6명이상	205(11.9)	90(14.0)	115(10.7)	
	평균(명)	4.3	4.2	4.3	

가족구성	핵가족	1,457(84.6)	541(84.1)	916(85.0)	0.11
	비핵가족	264(15.4)	102(15.9)	162(15.0)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155(9.0)	78(12.1)	77(7.1)	2.99
	100-200만원 미만	624(36.3)	265(41.2)	359(33.3)	
	200-300만원 미만	492(28.6)	178(27.7)	314(29.1)	
	300-500만원 미만	317(18.4)	87(13.5)	230(21.3)	
	500만원 이상	133(7.7)	35(5.5)	98(9.2)	
	평균(만원)	261.9	231.5	280.0	
거주지역	서울	251(14.6)	85(13.2)	166(15.4)	7.91*
	경기	323(18.8)	142(22.1)	181(16.8)	
	광역시	467(27.1)	169(26.3)	298(27.6)	
	도	680(39.5)	247(38.4)	433(40.2)	

\* :  $p < .05$ , \*\* :  $p < .01$ , \*\*\* :  $p < .001$

또한 거주지역의 경우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서울, 광역시 그리고 도 지역에서 이용자의 분포비율이 비이용자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이용자집단이나 비이용자집단이나 가족구성 분포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이용자 집단(280만원)이 비이용자 집단(231만5천원)에 비해 월평균 48만5천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에서는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37명을 제외한 1,684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상태에 따른 이용자집단과 비이용자집단을 비교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이용자집단이 2세 높고, 이용자집단 어머니의 79.5%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비이용자집단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분포가 이용자집단에 비해 6.0%p 높게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비교해보면 이용자집단의 경우에 어머니가 임금이나 비임금의 형태로 취업한 비율이 비이용자집단에 비해 22.2%p 높은 반면, 미취업의 비율은 비이용자집단이 이용자집단에 비해 23.4%p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김지경, 2004a)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형태가 자녀의 교

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주된 영향요인이 됨을 짐작케 한다.

<표3>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 명, %)

특 성	범 주	전 체	이용안함	이용함	χ <sup>2</sup> 검정 통계량
전체 <sup>1)</sup>		1,684(100.0)	626(37.2)	1,058(62.8)	
		1,684(100.0)	626(100.0)	1,058(100.0)	
연 령	만30세 미만	401(23.3)	244(38.0)	137(12.9)	31.82***
	만30세-39세	1,187(69.0)	346(53.8)	841(79.5)	
	만40세 이상	133(7.7)	53(8.2)	80(7.6)	
	평균(세)	33.1	31.8	33.8	
학 력	고졸 미만	129(7.7)	55(8.8)	74(7.0)	13.06**
	고졸	1,024(60.8)	350(55.9)	674(63.7)	
	전문대졸	228(13.5)	98(15.7)	130(12.3)	
	대졸이상	303(18.0)	123(19.6)	180(17.0)	
	평균(년)	12.7	12.8	12.6	
취업상태	임금	424(25.2)	116(18.5)	308(29.1)	19.61***
	비임금	217(12.9)	48(7.7)	169(16.0)	
	미취업	1,043(61.9)	462(73.8)	581(54.9)	

1)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37명 제외.

\* :  $p < .05$ , \*\* :  $p < .01$ , \*\*\* :  $p < .001$

## 2. 연령집단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지출비용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선행연구(김지경, 2004a;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나정 외, 2003, 통계청, 2002;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자녀가 어릴수록 시설이용을 하지 않으며, 연령에 따라 시설이용의 유형과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의 연령을 세분화 하여 나누고 연령별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이용유형,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 그리

고 이용시설에 따른 지출비용을 분석하여 <표4>에서부터 <표9>까지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표4>의 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자녀가 어릴수록 시설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만2세 이하의 이용비율은 12.2%이고, 만3세-5세의 이용비율은 73.8%, 만6세 이상은 81.3%로 나타나 만2세 이하의 영아와 만3세-5세 영유아의 이용비율의 차이는 무려 61.6%p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가 만3세 이상이 되어야만 시설이용을 통하여 가계가 정부의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시설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실적인 정책 적용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연령집단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 명, %)

연령 \ 이용여부	이용안함	이용함	계
만2세 이하	354(87.8)	49(12.2)	403(100.0)
만3세-5세	149(26.2)	420(73.8)	569(100.0)
만6세 이상	140(18.7)	609(81.3)	749(100.0)
계	643(37.4)	1,078(62.6)	1,721(100.0)

$\chi^2=580.72^{***}$  \*\*\* :  $p<.001$

본 연구에서는 학원, 방과 후 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정규유치원, 기타시설의 이용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은 경우에 따라 복수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표5>에는 자녀 연령별 단일 및 복수의 시설이용비율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자 1,721명 중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078명이고, 이 중 복수의 시설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1,078명의 4.7%인 51명이다. 이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시설이용률이 매우 낮은 2세 미만의 경우는 1명이고, 만3세-5세는

24명 그리고 6세 이상은 26명으로 취학 전 연령인 만3세-5세와 초등학교 학령기인 만6세 이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연령집단별 이용유형

(단위 : 명, %)

연령 \ 이용유형	단일시설이용	복수시설이용	계
만2세 이하	48(98.0)	1(2.0)	49(100.0)
만3세-5세	396(94.3)	24(5.7)	420(100.0)
만6세 이상	583(95.7)	26(4.3)	609(100.0)
계	1,027(95.3)	51(4.7)	1,078(100.0)

$\chi^2=1.97$

복수시설이용자 51명을 제외한 1,027명은 단일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연령별로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6>에 연령별 단일이용시설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만2세 이하의 경우는 어린이집(47.9%)과 놀이방(35.4%)이 주요 이용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어린이집 이용비율의 37.5%가 민간어린이집이고 10.4%만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은 학원의 이용비율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국공립시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지라도 국공립시설의 만2세 이하 보육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3세-5세의 경우는 어린이집(41.4%)과 유치원(27.3%) 그리고 학원(26.0%)이 주요 이용시설로 나타났다. 장시간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이용과 유치원 이용자 중 8.1%가 연장보육시간이 있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들 자녀에 대한 가계의 보육서비스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26.0%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학원이 상당부분 보육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자녀들에 대한 보육대체시설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이해된다.

만6세 이상의 자녀들의 경우는 85.4%가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인 것을 고려해보면 이들이 이용하는 학원은 보육의 성격보다는 교육의 목적이 우선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방과 후 보육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들이 이용하는 학원이 전적으로 사교육의 목적만으로 이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표6> 연령집단별 단일이용시설의 종류

(단위 : 명, %)

연령 \ 시설	학원	방과후 교내보충	방과후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직장 보육 시설	보육 유치원	정규 유치원	기타	계
만2세이하	5 (10.4)	-	-	5 (10.4)	18 (37.5)	17 (35.4)	-	3 (6.3)	-	-	48 (100.0)
만3세-5세	103 (26.0)	1 (0.2)	3 (0.8)	53 (13.4)	109 (27.6)	17 (4.3)	1 (0.2)	32 (8.1)	76 (19.2)	1 (0.2)	396 (100.0)
만6세이상	498 (85.4)	18(3.1)	13 (2.2)	16 (2.7)	11 (1.9)	1 (0.2)	-	6 (1.0)	19 (3.3)	1 (0.2)	583 (100.0)
계	606 (59.0)	19 (1.8)	16 (1.5)	74 (7.2)	138 (13.4)	35 (3.4)	1 (0.1)	41 (4.0)	95 (9.2)	2 (0.2)	1,027 (100.0)

$\chi^2=590.46^{***}$  \*\*\* :  $p<.001$

<표7>에서는 복수 시설이용자들이 어떠한 시설들을 이용하는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복수시설을 이용하는 51명 중 단 1명만이 3개의 시설(학원+방과후교실+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50명은 2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의 시설이용자 중 단 1명만이 놀이방과 정규유치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49명은 학원과 어린이집이나 학원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여 복수 시설의 이용은 주된 교육 및 보육시설과 학원의 조합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복수 시설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학원은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단일시설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학원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어, 이들이 이용하는 학원은 보육보다는 학습이나 재능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표7> 연령집단별 복수이용기관의 종류

(단위 : 명, %)

이용시설		연령			계
		만2세 이하	만3세-5세	만6세 이상	
학원	+국공립어린이집	-	3(12.5)	4(15.4)	7(13.7)
	+민간어린이집	1(100.0)	4(16.7)	10(38.5)	15(29.4)
	+놀이방	-	1(4.2)	1(3.9)	2(3.9)
	+직장보육시설	-	-	1(3.9)	2(3.9)
	+보육유치원	-	2(8.3)	1(3.9)	3(3.9)
	+정규유치원	-	13(54.2)	8(30.8)	21(41.2)
	+방과후교실+민간어린이집	-	-	1(3.9)	1(2.0)
	놀이방+정규유치원	-	1(4.2)	-	1(2.0)
계		1(100.0)	24(100.0)	26(100.0)	51(100.0)

자녀가 이용하는 주된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현황과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8>과 <표9>에서는 10종류의 시설을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그 외 시설의 4유형으로 나누어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자 1,078명의 분포와 각 연령별 및 이용하는 시설유형별 지출비용을 제시하였다. 복수시설이용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시설을 주된 이용시설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표8>의 이용하는 시설을 유형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세 이하의 경우는 어린이집이용이 49.0%로 가장 높고, 그 외 시설이 34.7%로 그 다음 순이다. 만3세-5세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40.0%, 유치원 28.3%, 학원 26.0%순이고, 만6세 이상의 경우는 학원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의 이용비율은 5.7%로 동일하고, 절대 다수인 82.9%가 학원을 이용하며 학원의 이용은 학령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집단별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유형

(단위 : 명, %)

연령 \ 시설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 외	계
만2세 이하	5(10.2)	24(49.0)	3(6.1)	17(34.7)	49(100.0)
만3세-5세	109(26.0)	168(40.0)	119(28.3)	24(5.7)	420(100.0)
만6세 이상	504(82.9)	35(5.7)	35(5.7)	35(5.7)	609(100.0)
계	618(57.3)	227(21.1)	157(14.6)	76(7.0)	1,078(100.0)

$\chi^2=462.52^{***}$  \*\*\* :  $p<.001$

<표9>는 연령별 이용하는 시설유형에 따른 월평균 지출비용과 각 시설 유형별 지출하는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우선, 만2세 이하집단의 경우가 자녀 1인당 월평균 21만2천원, 만3세-5세가 16만원, 만6세 이상이 15만6천원을 지출하여 자녀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세 이하는 놀이방이나 직장보육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포함하는 그 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월평균 25만2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유치원(23만3천원)→어린이집(18만9천원)→학원(17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3세-5세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월평균 18만4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시설(16만8천원)→학원(15만3천원)→어린이집(14만8천원)순으로 지출하며, 이러한 지출비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만6세 이상은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월평균 16만2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유치원(15만8천원)→어린이집(11만9천원)→그 외 시설(11만2천원) 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9> 연령집단 및 이용시설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 만원)

연령 \ 시설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 외	평균	F-검정 통계량
만2세 이하	17.0	18.9	23.3	25.2	21.2	0.66
만3세-5세	15.3	14.8	18.4	16.8	16.0	7.06***
만6세 이상	16.2	11.9	15.8	11.2	15.6	1.19

\*\*\* :  $p < .001$

### 3.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및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기초분석에서 살펴본 특성들을 중심으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델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표10>은 SBCR모델의 1단계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 어머니 정보를 알 수 없는 37명을 제외한 1,678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프로빗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10>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의 영향요인 : 1단계 Probit Analysis

변 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0.058(0.376)
자녀연령(만3-5세)	만2세 이하	-1.801(0.103)***
	만6세 이상	0.265(0.080)**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024(0.078)
어머니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0.015(0.079)
어머니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198(0.077)*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134(0.104)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103(0.137)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0.009(0.008)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040(0.045)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031(0.054)
N		1,678
Log Likelihood		-792.05

\* :  $p < .05$ , \*\* :  $p < .01$ , \*\*\* :  $p < .001$

분석결과 자녀연령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의 변수가 교육 및 보육시설이 용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먼저 자녀연령의 변수를 살펴보면 만2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는 준거집단인 만3세-5세에 비해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만6세 이상은 준거집단에 비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김지경, 2004b; 서문희, 2001; 나정·장영숙·문무경, 2000; 서문희 외, 2000)에서와 같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자녀가 시설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을 통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만2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다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1>은 SBCR모델의 2단계로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052명의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우선, Lamda가 유의하지 않아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주지역, 유치원의 이용, 어머니의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이 자녀1인당 지출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표 11>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비의 영향요인 : 2단계 Regression Analysis

변 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4.987(1.581)**
Lamda		-2.288(1.322)
자녀연령(만3-5세)	만2세 이하	-1.975(1.354)
	만6세 이상	0.351(0.274)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023(0.045)
어머니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0.079(0.112)
어머니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273(0.201)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357(0.141)*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179(0.116)
주된이용시설종류 (어린이집)	학원	0.075(0.051)
	유치원	0.188(0.058)**

변 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그 외 시설	-0.119(0.074)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0.021(0.010)*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095(0.043)*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130(0.038)***
N		1,052
F값		6.84***
Adj-R <sup>2</sup>		0.09

\*:  $p < .05$ , \*\*:  $p < .01$ , \*\*\*:  $p < .001$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보육시장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및 성장하였고, 서울지역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이 20%로 여타지역(50%)에 비해 적어(나정 외, 2003), 보육료 단가가 서울이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다는 선행연구(김지경, 2004b)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주된 이용시설 종류의 변수를 살펴보면 유치원이용자가 어린이집이용자에 비해 1만8천8백원 정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 중심의 유치원이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영어, 미술, 체육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나정 외, 2003;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1)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유치원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거주지역이나 유치원의 이용과 더불어 가구원수와 가구소득도 지출비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많으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가족원이 많아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용시간이 짧을 것으로 기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가구소득의 경우는 소득이 많을수록 지출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지출비용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는 달리 어머니의 연령은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로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낮은 시설이용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분석의 결과에서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정도가 자녀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전체 모델분석에서 자녀연령의 변수가 만3세-5세를 기준으로 서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각각의 연령집단 내에서 시설의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 분석의 결과와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SBCR모델분석을 하였다. 연령집단은 사례수가 적은 만2세 미만집단을 만3세-5세 집단에 포함하여 5세 이하집단과 6세 이상 집단으로 나누었고, 전체분석에서와 같이 어머니가 비동거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12>는 5세 이하 집단과 6세 이상 집단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의 영향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표 12>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의 영향요인 : 1단계 Probit Analysis

변 수		만5세 이하	만6세 이상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1.724(0.429)***	1.245(0.561)*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082(0.092)	0.053(0.121)
어머니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0.199(0.091)*	-0.198(0.123)
어머니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261(0.092)**	0.103(0.116)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003(0.121)	0.308(0.171)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1.164(0.169)	-0.135(0.204)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0.032(0.009)***	-0.032(0.012)**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087(0.054)	0.085(0.072)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051(0.064)	0.068(0.077)
N		951	727
Log Likelihood		-619.74	-336.89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5세 이하집단의 시설이용여부에는 어머니

학력과 어머니취업여부, 그리고 어머니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6세 이상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연령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5세 이하 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 고졸이하보다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의 시설보육이용에 있어 시설보육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고 신뢰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는 선행연구(김지경, 2004a)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어머니학력과는 달리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의 연령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한 경우에 비해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취업여부의 변수는 만5세 이하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심으로 한 어린자녀의 시설이용은 보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의 교육 및 시설이용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지만, 만6세 이상 집단의 시설이용은 보육성격이 아닌 부가적인 학원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13>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만6세 이상 집단에서는 Lamda가 유의하지 않아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5세 이하 집단에서는 Lamda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출비용을 분석할 때에는 반드시 표본선택편의의 문제를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13>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비의 영향요인 : 2단계 Regression Analysis

변 수		만5세 이하	만6세 이상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3.971(0.708) <sup>***</sup>	5.469(11.993)
Lamda		5.366(0.235) <sup>*</sup>	-1.896(6.970)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302(0.113) <sup>**</sup>	-0.017(0.297)
어머니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0.737(0.285) <sup>*</sup>	-0.154(1.086)
어머니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953(0.380) <sup>*</sup>	0.072(0.577)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198(0.661) <sup>**</sup>	0.515(1.722)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497(0.257) <sup>*</sup>	-0.156(0.753)
주된이용시설종류 (어린이집)	학원	-0.006(0.055)	0.068(0.111)
	유치원	0.144(0.054) <sup>**</sup>	0.202(0.015)
	그 외 시설	0.165(0.080) <sup>*</sup>	-0.350(0.149) <sup>*</sup>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0.115(0.246) <sup>*</sup>	-0.056(0.178)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270(0.132) <sup>*</sup>	0.146(0.481)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122(0.080)	0.199(0.375)
N		460	592
F값		3.24 <sup>***</sup>	3.89 <sup>**</sup>
Adj-R <sup>2</sup>		0.08	0.08

\* : p < .05, \*\* : p < .01, \*\*\* : p < .001

연령집단별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만5세 이하 집단에서는 가구소득 변수를 제외한 모든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 6세 이상 집단에서는 주된 이용시설의 종류 중 그 외 시설의 이용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5세 이하집단의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하 자녀수, 어머니취업여부, 어머니연령, 그리고 가구원수의 변수가 지출비용에 부(-)적인영향을 미치고, 어머니학력, 거주지역, 가족형태, 유치원이용, 그리고 그 외 시설이용의 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부(-)적인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3학년 이하 자녀가 2명이상 있을 경우 만5세 이하 자녀1인당 시설이용비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정된 가계소득에서 보육대상자녀수가 많으면 자녀1인당 지출되는 보육비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머니

가 취업한 경우도 미취업에 비해 자녀의 지출비용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취업모의 경우는 미취업모에 비해 장시간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는 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 전체 분석결과와 같이 어머니연령이 많아지면 지출비용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가구원수는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지출비용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5세 이하의 어린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분석대상을 자녀연령별로 구분하지 않은 전체의 분석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분석대상의 연령집단에 따라 가구원수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어머니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일 경우가 고졸이하의 학력에 비해 이용비를 더 지불하여 고학력의 어머니들이 자녀보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자에 비해 지출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도 핵가족이 비핵가족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시설을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녀가 이용하는 주된 이용시설이 유치원이나 그 외 시설일 경우 어린이집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의 경우가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고 놀이방이나 기타 시설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단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고 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육재정지원이 확대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3학년이

하 아동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만2세 이하의 시설이용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시설지원을 통한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2세 이하 영아의 시설이용에 집중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만2세 이하 영아의 시설이용을 통한 가계의 자녀양육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부담의 해소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되는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영아보육을 시급히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만2세 이하 영아가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10.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2003년 12월 현재 5.5%, 자료 : 중앙보육정보센터)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고려할지라도 국공립시설의 영아보육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육아지원효과에 있어 연령에 따라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2세 영아에 대한 우선 보육비율을 높이고, 만2세 이하 영아를 전담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만5세 이하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설비강화나 기능보강 등 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인건비지원, 그리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용아동의 교육비 및 보육료지원의 시설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만2세 이하 어린자녀의 시설이용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린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그다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의 자녀보육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시설은 우선 고려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보육시설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가 취업여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킬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12시간의 주간보육 또는 유치원의 8시간 종일반 위주로(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2004), 야간보육이나 일시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에 비해 단순하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취업여성들은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에 더하여 다른 양육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및 시설이용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는 묘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설지원을 통하여 가계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연장형보육, 휴일보육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시간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의 형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도 비교적 표준화된 교육 및 보육 내용으로 운영되고, 취업여성에게 자녀양육상담까지 이루어지는 일본(보육 새 틀을 짜자<sup>③</sup> 외국사례-일본, 한겨레 2004년 7월7일자)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보육의 내용이 학원식 인기위주의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이 많아 ‘학원’ 서비스와 차별화되지 않는 실정(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교육 및 보육시설로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적지 않다. 이는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인 수준이 학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차별화되지 않는 것으로 수요자들이 체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보육의 질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가에 따라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육아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은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유치원을 이용하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고학력일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이용하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자녀에게 주어지는 보육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들이 조건 없이 심신이 보호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보육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가계의 여건에 따라 자녀에게 제공되는 보호와 교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계층은 시장원리에 따른 교육 및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애 안 낳는 사회<sup>①</sup>, 중앙일보 2004년 10월 5일자)도 있다. 그러나 공공보육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가계의 여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고품질·균질의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육이념(제2조 1항, 3항)을 고려한다면 시장원리에 맡기기 보다는 공공성을 보다 더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법의 개정과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기존의 법정 저소득층을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현재는 보육의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육아지원대상과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하는, 즉 선별주의 정책에서 보편주의 정책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나 지원대상 아동의 확대 등은 국가가 자녀 양육의 주체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가계의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육아지원대상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며 가계의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 지원정책 방안.
- 개정 영유아보육법(2004년 1월 29일 개정).
- 김승권·조애저(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지경(2004a).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8호, 65-76.
- \_\_\_\_\_ (2004b),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분석. 2004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예정 논문.
- 나 정, 장영숙, 문무경(2000).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나 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2003), 영유아교육과 보육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변용찬(2002),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보육수요, 도시문제 vol 37, No.402, 22-34.
- 서문희, 임상현, 임유경(2000),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자격관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부·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2001),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 양상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21-265.
-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혁신. 교육인적자원부.
- 중앙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현황. <http://educare.or.kr>

(2004.9.1)

중앙일보 2004. 10. 5일자 (기획)기사 : 애 안 낳는 사회⑩ 개인이 할 일 ,  
나라가 할 일.

한겨레신문 2004. 7. 7일자 (기획)기사 : 보육 새 틀을 짜자③ 외국사례-  
일본.

통계청(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Atkinson, A.(1994). Rural and Urban Families's use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Vol. 43, No.1*, 16-22.

Butler, J. N. Brigham & S. Schultheiss(1991). *No Place like home : a  
Study of subsidized in-home and relatives child day care.*  
Philadelphia, PA : Rosenblum and Associations.

Casper L. M.(1995). What does it cost to mind our preschooler. U.S.  
Bureau of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Report, No. 52.*

Hofferth, W. B., Kisker, E.(1991). *The Demand and Supply of Child  
Care in 1990*, NAEYC.

NICHHD(1997). *Poverty and Pattern of Child Care.* Russel Asge  
Foundation.

Piecy, J. B., A. Collins & J. L. Kreader(1999). *Patterns and Growth of  
Child Care Voucher Use by Families Connected to Cash  
Assistance in Illinois and Maryland.*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Columbia Univ.

OECD(199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Getting the most  
from the investment.* Education Policy Analysis.

## Factors for the Use and Expenditure of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by Child's age groups

Jikyung Kim\*

This study is analyzed factors that decide the use and expenditure of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using the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 model.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 First, under two years old children's use rate of centers is very low. But their level of expenditure for using centers is relatively higher than over two years old group. Second, the mother's job status affects their child's use of centers. Thus the policy for supporting and care child through the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by government is evaluated as one of good methods to be ease the burden of child care. Third, if child live in Seoul, use a preschool, have a large income and the mother's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 the level of expenditure per child for use of centers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s.

---

\* Senior Researcher, Korea Labor Institute([jkkim@kli.re.kr](mailto:jkkim@kli.re.kr))